

위기의 아시아나, 자산 팔고 노선 줄이고 조직 슬림화

한창수 사장, 게시판에 담화문
신뢰회복 위한 3대 과제 발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단행 예고

아시아나항공이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해 자산 매각, 비수의 노선 정리, 조직 개편 등의 대대적인 자구조치를 단행한다.

지난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퇴진에도 “충분치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아시아나항공 매각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은 1일 오전 사내게시판에 ‘임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제목의 담화문을 올려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지난달 2018년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박삼구 회장 퇴진과 임직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쳤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아시아나항공은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자산 매각, 비수의 노선 정리, 조직 개편 등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

혁신을 통한 수익구조 개편과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시행한다”며 ‘3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한 사장은 먼저 추가적인 자산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금융권의 지원을 끌어내겠다고 했다.

작년 말 기준 아시아나의 총 차입금은 3조44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1년 안에 갚아야 할 단기차입금만 1조3200억원에 달한다. 차입금 구성은 금융리스 부채(41%)와 자산담보부증권(AB

S, 36%)이 대부분이다. 금융기관 차입금은 14% 정도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각할 수 있는 아시아나의 자산으로는 아시아나IDT, 금호연건(중국)유한공사, 아시아나 에어포트, 아시아나개발, 금호리조트, 에어서울, 에어부산, 웨이하이포인트호텔&골프리조트, 게이트메코리아 등이 꼽힌다.

앞서 산업은행도 아시아나 측에 우량 자산 매각과 시장차입 상환계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항공운송에 필요하지 않은 우량 자산 매각 등 신용등급 유지를 위한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채권단이 만족할 만한 대책을 내놓으라는 요구로 해석됐다.

박삼구 회장 사제 출연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아시아나가 처분할 수 있는 우량자산에 대한 처분 검토와 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사장은 또한 노선 운수권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비수익 노선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항공기 운영 대수를 축소해 수익성 위주의 노선 체계로 재편하겠다고 청사진도 내놨다.

아시아나가 운영하는 노선은 현재 87개에 달한다. 국제선은 22개국 64개 도시에 76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 국내선은 10개 도시에 11개 노선이 있다. 국제선 화물망도 11개국 27개 노선에 뻗어있다.

이 가운데 비용은 많이 들고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을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게 한 사장의 구상이다.

아울러 현재 보유·임대 중인 항공기 83대 중 연료 효율이 낮고 노후한 항공기도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아시아나항공이 83대 중 22.9%(19대)가 기령(항공기연수) 20년 이상인 노후기다. 이는 국내 항공사 중 노후 항공기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다. 이를 정리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기단을 운영하겠다는 의도다.

한 사장은 조직개편 방침도 밝혔다. 그는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조직개편 그림은 밝히지 않았지만, TF(테스크포스)가 개편안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사장은 이날 이미 ‘3대 중점과제’의 구체적인 방안 도출과 빠른 실행을 위해 TF를 꾸려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BMW그룹코리아 신임 대표이사에 한상윤

김효준 회장은 유임

BMW그룹코리아는 1일 신임 대표이사에 한상윤 사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기존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김효준 회장은 회장직을 계속 수행하기로 했다.

BMW에 따르면 2018년부터 사장 역할을 맡았던 한상윤 사장은 지난 1년간 대표이사직 승계를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신임 한상윤 대표이사는 자동차 업계에서 25년의 경험을 쌓은 인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세일즈, 마케팅, MINI 총괄을 거쳤고 2016년 BMW 말레이시아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한대표는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팀’을 목표로 BMW 그룹코리아의 미래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헨리크 본 쿤하임 BMW그룹 아시아-태평양 총괄 사장은 “김효준 회장은 지



BMW 한상윤 신임 대표이사 사장

난 20여년간 BMW그룹코리아를 이끌어 왔으며 그가 보여준 헌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회장직을 계속 수행하면서 그간 쌓아온 경영 노하우를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임 한상윤 대표이사 사장은 김효준 회장의 후임으로 매우 적합하다”며 “앞으로 한 사장과 더욱 밀접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두산인프라코어 ‘마이스터’ 4명 선정

기술자 체계적 육성, 자부심 고취

두산인프라코어는 현장 최고 기술전문가인 ‘마이스터’ 4명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2017년 관련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마이스터는 기술자의 체계적 육성과 자부심 고취를 위해 오랜 기간 특정 직무에 종사한 전문 기술자에게 부여되는 기술직 최고 영예다. 두산인프라코어 마이스터는 6개월에 걸쳐 기술직 개인의 역량평가 및 검증, 주변 동료들의 다면 인터뷰를 통한 사실 확인, 내부 기술전문위원회의 종합평가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이번에 선정된 마이스터는 Heavy(건설기계) BG 김주호 기술부장(측정·시험, 34년 경력)과 이종열 기술부장(용접, 30년 경력), 엔진 BG 오태관 기술부

장(엔진 조립, 34년 경력)과 장세영 기술부장(엔진 조립 및 설비 보전, 31년 경력)이다. 이들 4명은 해당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경력과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으며 동료 및 후배들로부터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마이스터 배출은 두산인프라코어가 2017년 1월 도입한 기술직 인사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기술직 사원은 최고의 기술 장인 마이스터로 성장하는 ‘기술전문가 트랙’과 생산현장의 임원으로 성장하는 ‘현장관리자 트랙’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커넥티드카·재난관리 등 7개분야 사례 소개

KT경제경영연, 5G 가이드북 발간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가 코앞이다. 5G 혁신이 가속화되는 시점, 산업영역에 5G 활용 사례를 묶은 가이드책이 나왔다.

KT는 5G 가이드북 ‘세상 모든 새로운 시작, 5G. 당신의 산업을 바꿉니다’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서 펴낸 이 보고서는 크게 5G 네트워크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7개 산업 분야의 서비스 사례 소개로 구성됐다.

이 보고서는 ‘5G 가이드북’이다. 5G에 대한 기술적 정의와 특징이 담겨있다. 5G 네트워크는 용량에불루션(LTE) 대비 20배 빠른 최대 전송속도(10배 빠른 체감속도), 10분의 1 수준인 지연 시간, 3배 향상된 주파수 효율, 100배 높아진 전송가능 트래픽과 함께 단위면적(1km²)당 접속가능 기기 100만개 등의 특징을 갖는다. 이밖에 유연성, 보안



모델이 KT경제경영연구소의 5G 가이드북 발간 소식을 알리고 있다. /KT

성, 위치 정확성 등 차별화된 특성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커넥티드카, 스마트팩토리, 실감미디어, 관광, 물류·유통, 재난관리, 공공안전 7개 분야에서 진화된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설명과 함께 41개의 서비스 적용사례를 소개했다.

커넥티드카 분야에서는 차량 사물통신(V2X) 기술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협력 편대 자율주행, 자율주행 셔틀버스, 자율주행 발레파킹 등 8개 사례를, 스마트팩토리 분야에서는 5G 전용망 기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능형 영상 관제, 기기 설비 예지 보전 등 8개 사례를 각각 소개했다. 실감미디어 분야는 아바타 커뮤니케이션 등 5개 사례를 담았다.

재난안전 분야는 소방대원 통신망 운영 제거, 비행체를 활용한 긴급 통신망 구축 기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조난자 위치 파악 등 5개 사례를 소개했다. 이밖에 관광 분야에서 지능형 객실 서비스 등 5개 사례를, 물류·유통 분야에서 드론 운송 시스템 등 5개 사례를, 공공안전 분야에서 스크론헤드 안전관리 등 5개 사례를 각각 수록했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지난해 7월 ‘5G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를 발간한 지 9개월 만에 산업 및 공공영역을 위한 가이드북을 펴냈다.

/김나인 기자 silkni@

KT ‘기가아이스’ 모바일 결합할 땐 월 최대 8800원 할인

신규 가입자 결합 할인 프로모션

KT는 지능형 영상보안 솔루션 ‘기가아이스’ 모바일 결합할인 프로모션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KT 기가아이스는 네트워크 기반 지능형 영상보안 솔루션이다. 사업장에 설치된 IP카메라로부터 수집된 영상을 플랫폼에 저장, 분석해 실시간 풀HD급 화질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프로모션으로 기가아이스 신규 가입자는 KT 모바일 요금제 2만2000원 이상 사용할 경우 3년 약정으로 결합 시 매월 기가아이스 요금에서 33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가아이스 캐



KT 모델들이 ‘기가아이스’ 모바일 결합할인 프로모션을 홍보하고 있다. /KT

라 1대를 이용할 경우 월 2만6950원(부가세 포함)의 가격으로 지능형 보안서비스를 쓸 수 있는 셈이다. 단, 올레 세트 맞춤형 결합은 제외된다.

아울러 KT가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기가아이스 인터넷 결합할인 프로모션’과 모바일 결합할인 혜택을 중복으로 누릴 수 있다. 기가아이스 신규 가입자가 KT 인터넷 및 모바일과 3년 약정으로 결합하면 매월 8800원(인터넷 결합할인 5500원, 모바일 결합할인 3300원)을 할인으로 월 2만1450원(부가세 포함)으로 기가아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인터넷 요금의 10%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또 고객 요청 시 KT 텔레캅의 전문 출동서비스를 월 2회 무료 제공하고, 도난이나 상해 사고 발생 시 보상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김나인 기자